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가?

crcna.org



Christian
Reformed
Church

Scripture quotations in this publication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 1973, 1978, 1984, 2011 by Biblica, Inc.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Who We Are and What We Believe (Korean), © 2018 by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1700 28th Stree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let may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welcome your comments. Call us at 1-800-333-8300 or e-mail us at editors@faithaliveresources.org.

ISBN 978-1-59255-895-7

10 9 8 7 6 5 4 3 2 1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1천여 교회들이 모인 북미주 개혁신교회(약칭 CRC)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널리 흩어진 하나의 큰 가족 같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도 다양성과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거나 혹은 그저 사람들과의 친분으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막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맞는 교회를 찾는 중에 우리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교회라는 곳을 낯선 처음 방문해서 교회에 대해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소책자는 여러분에게 북미주 개혁신교회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의 다섯가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 **하나 되기**는 사명선언문과 비전선언문에 명시한 우리의 헌신과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 **함께 있기**는 우리의 근원과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 **함께 믿기**는 우리가 교회로서 옳다고 믿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우리는 그저 모여서 믿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합니다. **함께 일하기**는 국내나 해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재원을 모으는지 설명합니다.
- 다섯번째, **공동체에 속하기**에서는 북미주 개혁신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교인이 될까요?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 되기

우리의 사명선언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정의하고, 우리의 비전 선언문은 우리가 어디로 가려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함께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며 돌봅니다. 우리는 다른 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비전

북미주 개혁신교회는 건강한 교회, 노회, 총회와 사역들로 구성된 다양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전세계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함께 있기

우리는 스스로를 북미주 개혁신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 역사의 중심에 계심을 믿습니다.
- 우리는 **개혁신교회**라고 불립니다. 16세기 유럽 개신교 종교개혁 때 시작된 교회의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를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북미주**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또한 우리가 전세계 다른 지역의 개혁신교단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북미주 개혁신교회는 그리 큰 교단은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1000여 개의 교회들 중 75%가 미국에 있고, 나머지 25%가 캐나다에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각각의 교단으로 나누지 않고, 두 나라를 아우르는 보기드문 교단 중 하나입니다. 거의 23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북미주 개혁신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전체인구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북미주 개혁신교회는 어디에서 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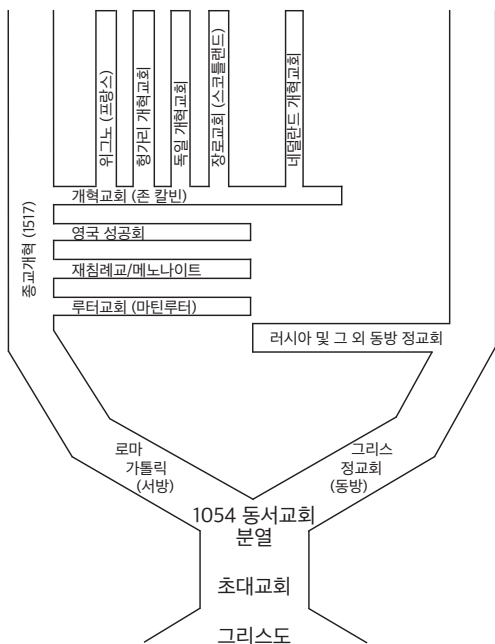
기독교 전체를 한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 깊은 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발전에 대해 알려줍니다. 1세기 이후에는 교회가 성장하여 중동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 약 천년 동안 교회는 하나의 튼튼한 나무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천 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교회는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두 갈래로 분리되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한 서방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불립니다.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이 가톨릭 교회는 정치 권력, 돈, 영향력과 결탁하였습니다. 이런 부패때문에 16세기 독일의 수사였던 마틴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저항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시작했던 이 운동은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발전합니다.

종교개혁은 유럽 각 나라로 퍼졌습니다. 북미주 개혁신교회를 비롯한 현대의 많은 교단들이 이때의 개혁운동으로 인해 생긴 가지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신교회를 장로교라고 하고, 독일의 개혁신교회를 루터란교회라고 합니다. 영국의 개혁신교회는 영국 성공회라고 하며 네덜란드의 개혁신교회는 화란 개혁신교회라고 합니다. 때로 개혁신교회와 장로교회는

‘칼빈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프랑스 개혁가 존 칼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유아세례 문제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분파는 재세례파라고 합니다. 북미의 메노나이트나 침례교 등 여러 교단들은 이 가지에서 나온 교파들입니다.



1840년대, 목사와 농부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북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네덜란드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미시건 주 홀랜드에 정착했습니다. 1857년에는 그 중 일부가 오늘날 북미주 개혁교회로 불리는 교단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많은 이민 교회들처럼 처음에는 모국어로 예배했고, 교단의 정체성도 다분히 민족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소수민족의 흔적은 사라지고 점차 북미의 일반적인 교단이 되었습니다.

북미주 개혁교회 출범 후 첫 100년 동안에는 대부분 교회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1940년대와 50년대에 수만명의 네덜란드 이민자들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그

중 상당수가 새롭게 개척한 북미주 개척교회에 정착했습니다. 이 이민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곧 적응했고, 교단은 교세가 커져서 북미에 제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쿠바와 다른 라틴 아메리카 나라에서 온 이민자와 난민들이 플로리다로부터 점차 대륙 곳곳에 퍼져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일구던 1960년대에는 CRC도 처음으로 스페인어 회중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북미주 개척교회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이민의 물결은 CRC와 관련된 많은 한국의 장로교인들이 북미로 이민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성장한 한인 교회가 지금은 전체 북미주 개척교회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40년대의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처럼 한인교회도 처음에는 모국어로 예배하지만, 2 세들은 영어로 예배드립니다.

북미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북미주 개척교회는 확연히 다민족화 되었습니다. 전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이 교단 내에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이제 영어 뿐만 아니라 한국어, 스페인어, 광둥어, 중국어, 라오스어, 스와힐리어, 나바호어, 프랑스어 및 주니어 등 다양한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미주 개척교회는 전세계 열방의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천국의 그림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믿기

이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대략 알 수 있게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무엇이 북미에 퍼져 있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되게 할까요? 또한 무엇이 우리를 한 몸되게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특정한 핵심 신앙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기 위해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온 세대, 온 세계 기독교 교회들과 거의 같습니다. 수 세기 전에 전세계적의 교회들에 의해 채택한 사도신경(the Apostles' Creed), 니케아 신조(the Nicene Creed), 아타나시우스 신조(the Athanasian Creed)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Belgic Confession),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the Heidelberg Catechism), 돌트 신경(the Canons of Dort)을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일치하는 교리이며 역사적인 개혁신의 기독교 신앙의 표현으로 받습니다. 이들 역사적 신조 및 고백과 더불어, 우리는 연합과 정의와 화해를 위한 부르심인 “벨하 신앙 고백 (Belhar Confession)”과 현대어 신앙고백인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를 개혁교회의 신앙 표현으로 인정하여 현대어 고백으로 총회에서 채택했습니다.

이 공통된 믿음을 요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신경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비롯한 다른 신조와 고백은 www.crcna.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설명하자면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 신경은 사도들이나 예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던 1세기의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사도들로부터 말과 글로 전해받아서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를 기독교 신앙의 주된 가르침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도 신경은 이후 초대교회를 계승한 후대 회의들에서 다듬어졌고, 4세기 후반에 현재의 형태로 채택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사도신경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부분으로 나뉘집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세 ‘인격’이면서 또한 하나이신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인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세 부분에서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인격을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삼위일체에서 첫번째 인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부”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알 수 없는 영적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능력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관한 각종 이데올로기들에 맞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창조의 선함과, 하나님이 창조물에 의미와 목적을 주셨다는 확신입니다.

나아가 창조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기적적으로 잉태되었고,
여자에게서 나셨으며 (눅 1:26-38),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삼위의 두번째 인격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의 삶,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만물의 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시대, 모든 곳의 참된 기독교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위로자 되시며 능력의 근원되시는 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요 16:13) 인도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약속 이후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며,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되게 하십니다. 깨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십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다른 내용처럼 보이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기원전 400년까지 수 세기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비롯하여 성령님의 능력의 임재, 그리고 그 후 1세기동안 이루어진 기독교의 교세 확장 가운데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성경을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각기 다른 66권의 책을 모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전체가 인간과 기타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다룬 하나의 풍성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주제

개척교회 교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다음의 네 가지 주제로 요약합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및 모든 창조물의 관계가 선했고 충만했습니다.

타락

인간은 교만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한 행위는 ‘죄 바이러스’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모든 것을 오염시켰습니다. 어떠한 사람, 생물, 제도, 관계 혹은 개인의 활동도 이 전적인 오염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탐욕, 폭력, 압제, 오염, 질병, 죽음 및 마약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죄로 인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합니다.

구속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죄의 승리로 끝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과 그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크신 사랑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구속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인간의 삶을 살고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그가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에 확장되고 기독교인들은 이 위대한 사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새 창조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는 죄의 흔적과 영향을 말끔히 없애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도 없으며 죽음도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시며 모든 창조물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개혁주의 액센트

우리는 이미 북미주 개혁교회의 가르침이 세계의 다른 교회들의 믿음과 거의 같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교단으로서 특정한 가르침과 성경해석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세계 교회들을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교단들을 각각의 장기로 여기면 될 것입니다. 각 장기들은 몸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는 한 방에 세계 방방곡곡에서 온 영어사용자들이 모여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모두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의 억양때문에 굉장히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의 특징을 가리켜 개혁주의

액센트가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개혁주의 액센트의 핵심적인 세 단어는 **주권,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개혁주의 액센트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합니다. 국가의 통치에서부터 개인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생각이나 말, 행동, 욕망도 죄의 영향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엡 2:1) 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죄의 노예된 상태나 죄에 빚진 상태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의지에 힘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일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하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 반응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롬 8:29-30)고 말합니다.

언약

우리 개혁주의 액센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다른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계약 혹은 조약 같은 것으로, 서로 약속하는 상대방과 함께 서명 등 적절한 방식을 거쳐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의 ‘약’이라는 말도 역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뜻합니다.)

이것이 반가운 소식인 이유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슬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2일만 되면 사라지는 수많은 새해 결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에는 굳게 맺었던 결혼서약들이 후에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생각해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키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고 굳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의 굳게 지키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혼자서도 이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개혁신교회의 액센트가 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이어서 계승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믿도록 촉구한 것에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행 2:39)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역시 공동체적이고 세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를 들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유아세례는 초대교회 때부터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세례는 등록교인인 부모의 자녀에 한에서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유아들은 성장하며 가정과 기독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것입니다. 유아세례는 아이들이 세례 당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장된 언약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교회 전체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혁주의 액센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세계 모든 인간의 문화를 다루기 때문에, 이 액센트는 매우 광범위해집니다. 이 세상 국가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는 정해진 국경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성당과 같이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종교적” 활동으로 축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창조세계에 확장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인 회심과 변화를 이룰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을 날마다, 계절마다 은혜롭게 지속하고 유지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행동, 삶, 기술, 예술, 제도 등 어떤 영역에서든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전세계가 하나님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의 무대입니다. 네덜란드 정치가이자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실 부분은 단 한 뼘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다는 말은 우리 교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특별한 사역에 적극적이라는 뜻입니다. 성과 속을 구분짓지 않고, 예술, 미디어, 출판, 법, 교육, 노동, 복지, 농업, 기업, 사회정의 및 정치 등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인간 활동의 어떤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미주 개혁교회는 유치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문화의 그 어떤 분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비록 죄와 파괴 그리고 악이 여전히 세상에 횡행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함께 일하기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눈치챈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 그 교회들이 모인 지역 노회 및 교단 전체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은 지역 사회와 북미 전역, 더 나아가 전세계를 변화시키는데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북미주 개혁신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 교육 및 구호 기관은 40여 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또한 전세계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지상명령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교단 교인들의 기도와 헌금, 은사, 사역분담금(각 교회가 등록교인 1인당 매주 8달러씩 교단에 헌금하는 방식)을 통한 후원으로 교단의 이 모든 사역이 운영됩니다.

우리 교단의 사역은 우리의 부르심을 반영한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뉘집니다.

신앙 성장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모든 연령과 인생의 단계에 따라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신앙 교육부(Faith Formation Ministries)는 개교회를 격려하고 구비시켜 모든 연령대의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도록 돕습니다.

crcna.org/faithformation

칼빈 칼리지는 미시건 주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명문 인문교양대학으로서 학생들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준비시킵니다. 열정적인 학문 탐구와 잘 준비된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학생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깊이 사고하고 정의롭게 행하며 열심히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calvin.edu

복음 선포와 예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칼빈 신학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끌어 갈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140년 전에 설립된 칼빈 신학교는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잘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구비시켜가는 학교의 전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calvinseminary.edu

예배 사역부는 북미주 개혁교회들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창의적인 재능들을 모으기 위해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자원을 찾고 개발합니다. 또 교회들이 예배에 관해 더욱 진지하게 질문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우리는 칼빈신학교 설교연구소(the Center for Excellence in Preaching)

및 칼빈칼리지 기독교 예배연구소(the Calvin Institute for Christian Worship)와도 긴밀히 협력합니다.

crcna.org/worship

세계 선교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북미와 전세계에서 지역 교회들을 세우고 돕습니다.

국제 방송선교부는 세계 10대 언어로 복음 전파와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어 공급하는 미디어 사역입니다. 리프레임(ReFrame) 미디어 사역은 온라인과 공중파 상의 신앙자료를 제작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backtogod.net

개혁교회의 국내선교부와 해외선교부가 연합하여 세운 **글로벌 선교부는 (Resonate Global Mission)** 선교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회개척을 도우며, 전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파트너들과 동역합니다. 지난 100여년간 국내선교부와 세계선교부는 북미는 물론 전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파해왔습니다. 글로벌 선교회는 이 선한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하여 계속 교회를 세우고, 캠퍼스 사역을 하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구비시키며, 미래 지도자를 키웁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 파송과 복음 선포,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들 사역 외에도 글로벌 선교부는 새로운 사역의 기회를 열어갑니다. 해외선교의 경험을 활용하여 교회가 북미주에서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돕습니다. 해외에서는 교회 개척과 캠퍼스 사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그들의 교회와 공동체 및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resonateglobalmission.org

섬기는 리더십

풍성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평생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헌신된 일꾼을 발굴하고 채용하며 훈련합니다.

목회 후보생 위원회는 개교회들을 섬기기 위해 훈련받고 안수 받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crcna.org/candidacy

군목 및 원목 사역부는 병원, 직장, 교도소, 군대 등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지원하고 훈련합니다.

crcna.org/chaplaincy

목사-교회 지원부(Pastor Church Resources, PCR)는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상담하고 자원을 제공하여 목회자 이동과 청빙과정에 있는 교회들을 돕습니다. 목사-교회 지원부 안의 **지속가능한 목회사역부(Sustaining Pastoral Excellence)**는 활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북미주 개혁신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훈련합니다.

crcna.org/pcr

북미주 개혁신교회 신용협동조합(Loan Fund)은 미국 내 교단 교회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건축 등 다양한 사역이 가능하게 합니다.

crcna.org/loanfund

다음 세 가지 사역은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세계선교 사역의 일환으로서, 널리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 **커피 브레이크는** (crcna.org/CoffeeBreak) 전도와 훈련에 탁월한 성경발견 소그룹 사역입니다.
- **교사 훈련원(Educational Care)**은 제한된 자원을 가진 교사와 학교를 격려하고 돕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창조물을 다스리며, 어린이와 학급을 존중하는 교수법과 전략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디모데 지도자 훈련원은 (tlti.org)** 해외와 국내에서 교회 지도자를 위한 필수 훈련을 제공하고, 교회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하도록 구비시킵니다.

자비와 정의

압제 받고, 버림 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며,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의롭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국제 구제부(World Renew)는 빈곤, 기아, 재난,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고자 하는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구제 및 개발사역기구입니다.

worldrenew.net

캐나다 원주민 사역은 캐나다 원주민과 이민자들 사이의 관계회복과 화해를 증진시킵니다.

crcna.org/Canada/aboriginal-ministry

장애인 사역부는 교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환영하고 포용하여 그들이 온전히 교회생활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crcna.org/disability

인종관계 사역부는 교회 안은 물론 온 세계에서 나타나는 인종차별 문제와 영향을 제거하도록 교단, 교회, 개인을 돕습니다.

crcna.org/race

학대방지 사역부는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돕습니다.

crcna.org/SafeChurch

사회정의 사역부와 사회문제 참여센터는 북미주 개혁신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사회 정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며, 캐나다와 미국의 공적인 영역에서 그들이 신앙의 목소리를 내게 하여 북미주와 온 세상에서 정의, 희망, 화해의 기치를 듭니다.

crcna.org/justice

crcna.org/publicdialogue

기타 사역 프로그램

북미주 개혁신교회에는 **페이스 얼라이브 (Faith Alive Christian Resources)**라는 이름의 출판사역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공부, 단기선교, 예배를 위한 책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페이스 얼라이브는 또한 자매교단인 미국개혁신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에도 자료를 제공합니다.

www.FaithAliveResources.org

우리는 또한 교단의 정기 간행물인 **배너(The Banner)**도 발행합니다.

www.thebanner.org

네트워크 사역(The Network)은 교단 교회 및 기타 기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범교단적 온라인 포럼입니다.

crcna.org/network

협력 사역

이 외에도 우리와 가까운 파트너로 협력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남자 어린이를 위한 **칼빈소년단(Calvinist Cadet Corps)**, 여자 어린이를 위한 **보배모임(GEMS)**,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회(Youth Unlimited)**가 그 좋은 예입니다.

아이오와 주 서북부의 **도르트 칼리지**, 온타리오 주 서남부의 **리디머 대학교**, 알버타 주 에드몬튼의 **킹스 대학교**, 시카고 근교의 **트리니티 기독교대학교**는 개혁주의 기독교 관점으로 신앙, 학문 및 삶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틀을 제공하여 대학 인문교양과 자연과학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기독교 학문 연구소(The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바나바 재단(미국)과 **기독교 청지기 봉사회(캐나다)**는 청지기 정신을 강조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집사들이 함께 **캐나다 집사연합회**를 조직하여 공동 자원을 모으고 훈련을 제공합니다.

프렌드십 사역은 교단 소속 교회 뿐만 아니라 외부의 지적 장애인들에게 매주 일대일 제자훈련 및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세계 파트너십(Partners Worldwide)은 북미의 사업 지식과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을 연결하여 협력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공동체에 속하기

이제 북미주 개혁교회에 대한 안내가 끝났습니다. 우리 교단의 비전과 사명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더 진지한 관계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에서 각종 활동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어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더욱 헌신하도록 권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함께 나누면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관계와 상호작용이 있을 때 가장 잘 성장하게 되며, 또한 진정한 공동체에는 헌신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누군가 보이지 않을 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어떤 특정한 지도자 역할은 등록교인에게만 맡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형제를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기게 되듯,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아 담당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이자 동시에 합법적 조직으로서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매년 교인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을 정합니다. 오직 등록교인만이 의사결정을 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등록교인이 되고 싶다면 교회의
목회자나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함께 예배하고 사역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북미주
개혁교회라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실
여러분을 온맘으로 환영합니다.



Christian
Reformed
Church

crcna.org

ISBN 978-1-59255-895-7



9 781592 558957

216674